

우.월.한. 국.어
이.유.진

2021 소방직 국어 해설



문 1.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선거가 몇일 후에 시작한다.
- ② 고향을 오랜동안 떠나 있었다.
- ③ 진로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했다.
- ④ 그의 연설에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다.

문 2.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은?)

- ① 굶다 [굴따] ② 넓다 [넙따]
- ③ 맑다 [막따] ④ 얇다 [압따]

문 3.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요일에 워크샵이 있다.
- ② 과장님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 ③ 그 배우는 애드리브를 잘한다.
- ④ 회의를 위해 준비한 파일이 사라졌다.

문 4.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영화가▽떠난▽지▽보름이▽지났다.
- ② 그▽여자는▽사흘만에▽집에▽돌아왔다.
- ③ 쌀,▽보리,▽콩,▽조,▽기장등을▽오곡이라▽한다.
- ④ 예전에▽가▽분▽태가▽어디▽쯤▽인지▽모르겠다.

문 5.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 ② 귀여운 영수의 동생을 만났다.
- ③ 그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 ④ 나는 사과 한 개와 배 두 개를 먹었다.

문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우리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
 ㉡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 강아지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 지영이는 나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다.

- ① ㉠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② ㉡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③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④ ㉣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문 7.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을 때에도 뿔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렵פות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① 목적 없는 독서를 지양해야 한다.
- ②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 ③ 읽은 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④ 책을 대할 때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문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랏:말쯔.미㉠中동國.궤.에달.아文문字.쥁.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씩.이런전.츠.로㉡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막.츄.내제.쁘.들시.러퍼.디.물홍.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ㅎ.야㉢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뽏字.쥁.틀밍.ㄱ.노.니.사.름:마.다.히.야.수.비니.겨.날.로㉣뿌.메.便.편.安.한.키.ㅎ.고.저.홍.썩.르.미니.라

- ① ㉠: 처소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였다.
- ② ㉡: ‘어리석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③ ㉢: ‘불쌍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④ ㉣: 명사형 전성 어미를 사용하였다.

※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신고요
 어귀야 즈 디를 드티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작자 미상, 「정읍사(井邑詞)」

(나)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문 9. ㉠~㉣에 대한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9)

- ① ㉠: '멀리멀리'라는 의미이다.
- ② ㉡: '전쟁터'라는 의미이다.
- ③ ㉢: '놓으십시오'라는 의미이다.
- ④ ㉣: '저물까 두렵다'라는 의미이다.

문 1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0)

- ① (가)는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담겨 있다.
- ② (나)는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분연체를 이룬다.
- ③ (가)는 떠난 임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④ (나)는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민요적 시가이다.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문 1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1)

- ① 일상적 소재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문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 ① ㉠: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복숭아나무의 피상적인 모습이다.
- ② ㉡: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드러나 있다.
- ③ ㉢: 복숭아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복숭아나무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 야 아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냥하여 짐 못 드러 흐노라
- 이조년

(나)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회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넌
산(山) 바라보니 거머뿔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즌 디 므른 디 굴희지 말고 워렁
충창 건너가서 정(情)옛 말 흐려 하고 겹눈을 흘긔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열사흔날 골가 벽긴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시 만정 횡허 낮이런들 ㉣늬 우일 번 흐괘라
- 작자 미상

문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3)

- ① 밤으로 설정된 배경이 주제와 호응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색채를 대비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문 14. ㉠~㉣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 ① ㉠: 두견새가 알겠느냐마는
- ② ㉡: 양손을 반갑게 흔들고
- ③ ㉢: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 ④ ㉣: 남을 웃길 뻔하였구나

문 15. ㉠과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는?15)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었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
을 만들어 놓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
의 손목을 덤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렵하겠나.”
“훤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마리유.”
- 채만식, 「미스터 방」

- ① 四面楚歌
- ② 刻骨難忘
- ③ 九死一生
- ④ 背恩忘德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또는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관습적으로 왼손잡이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를 덮이고, 아기방을 분홍빛으로 장식한다. 왼손잡이 아기의 젖병, 턱받이, 고무젖꼭지 그리고 큰 다음에는 컵, 접시, 도시락, 책가방까지 주로 분홍색이나 보라색이며 나비, 꽃, 요정으로 장식되어 있다. 부모들은 왼손잡이 아기의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카락이 너무 짧을 때에는 머리핀이나 리본을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오른손잡이 아기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일이 없다. 분홍색 장신구나 장난감을 가질 일도 없다. 오른손잡이 아기들에게는 파란색이 인기 있는 색상이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른손잡이 아이들의 옷이나 다른 물건들에는 보통 자동차, 스포츠 장비, 우주 로켓이 그려져 있고, 나비, 꽃, 요정은 결코 그려져 있지 않다. 오른손잡이들의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장신구로 예쁘게 꾸미는 일은 매우 드물다.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지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하는 데 금방 능숙해진다.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냐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하게 된다.

우리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성에 딱지를 붙인다. 아이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옷이나 머리 모양, 장신구로 성 표기가 되지 않은 아기나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어른들이 계속해서 ‘그, 그녀, 남자, 여자, 소년, 소녀’ 같은 말로 성을 구분한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아이들은 옷, 외모, 언어,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관습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 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꽤 오래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문 16. 윗글의 서술 전개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16)

- ①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 ②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③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한다.
- ④ 문제의 원인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한다.

문 17. 윗글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7)

- ① 오른손잡이 아이들은 창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② 왼손잡이 아이들은 자기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된다.
- ③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이다.
- ④ 성 역할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 결과이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8)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 ① 지난 행적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시간 순서대로 명료하게 해소되고 있다.
- ③ 타인의 심리를 추측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탐색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 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確的)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 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이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애젠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場)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풀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향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가 나지 …… 그러나 늘그막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러네. 대화쫓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걸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문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9)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서사 진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 ③ 허 생원은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④ 허 생원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 20.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

- ① ㉠: 허 생원은 서정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
- ② ㉡: 허 생원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직접 알려주고 있어.
- ③ ㉢: 허 생원은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며 자랑하고 있어.
- ④ ㉣: 허 생원은 소중하게 간직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어.



1) ④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우레’는 ‘천둥’의 복수 표준어이다. 간혹 ‘우레’를 ‘우뢰(雨雷)’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뢰’는 틀린 표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답해설]

① → 며칠

한글 맞춤법 제27항 붙임2에 따라 ‘며칠’로 적는 것이 옳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꿀병 꿀탕 꿀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② → 오랫동안

‘오랫동안’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이 길게’의 뜻인 부사 ‘오래’와 ‘어느 한 때에서 다른 한때까지 시간의 길이’의 뜻인 명사 ‘동안’이 합쳐진 합성어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표기한다.

참고) ‘오랫동안’과 ‘오랜 동안’의 표현(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답변)

‘때의 지나간 동안이 길다’를 뜻하는 형용사 ‘오래다’의 관형사형 ‘오랜’ 뒤에 명사 ‘동안’을 써 ‘오랜 동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붙여서 쓰는 ‘오랜동안’은 ‘오랫동안’의 비표준어입니다.

③ → 곱곰이

한글 맞춤법 제25항 2에 따라 ‘곱곰이’로 적는 것이 옳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버젓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지그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곱곰이 더욱이 생긱이 오뚱이 일찍이 해죽이

2) ③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ㄱ, ㄱ]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라 ‘맑다’의 어간 받침 ‘ㄹ’은 ‘ㄱ’으로 발음되고, 뒤에 연결되는 ‘ㄷ’은 앞의 ‘ㄱ’에 의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제11항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ㄱ,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오답해설]

① → [국:따]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ㄱ, ㄱ]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라 ‘맑다’의 어간 받침 ‘ㄹ’은 ‘ㄱ’으로 발음되고, 뒤에 연결되는 ‘ㄷ’은 앞의 ‘ㄱ’에 의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맑다’는 [국: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② → [널따]

“겹받침 ‘ㄴ, ‘ㄴ, ‘ㄴ, ‘ㄴ,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ㄴ, ㄴ, ㄴ]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눅다’의 어간 받침 ‘ㄴ’은 ‘ㄴ’으로 발음된다. 또한 “어간 받침 ‘ㄴ,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5항에 따라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눅다’는 [널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제10항 겹받침 ‘ㄴ, ‘ㄴ, ‘ㄴ, ‘ㄴ,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ㄴ, ㄴ, ㄴ]으로 발음한다.

④ → [얹:따]

“겹받침 ‘ㄴ, ‘ㄴ, ‘ㄴ, ‘ㄴ,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ㄴ, ㄴ, ㄴ]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얹다’의 어간 받침 ‘ㄴ’은 ‘ㄴ’으로 발음된다. 또한 “어간 받침 ‘ㄴ,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5항에 따라 ‘얹다’의 어간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얹다’는 [얹: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3) ① [어문규정 - 외래어 표기법]

→ 워크숍

‘workshop’은 ‘워크샵’이 아니라 ‘워크숍’으로 적는 것이 옳다.

[오답해설]

② ‘leadership’은 ‘리더쉽’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적는 것이 옳다.

관련 규정 > 어말의 [ㄹ]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ㄹ]는 ‘슈’로, 모음 앞의 [ㄹ]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쇄’,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flash[flæʃ] 플래시	shrub[ʃrʌb] 슈러브
shark[ʃɑ:k] 샤크	shank[ʃæŋk] 샹크
fashion[fæʃən] 패션	sheriff[ʃerif] 셰리프
shopping[ʃɒpɪŋ] 쇼핑	shoe[ʃu:] 슈
show[ʃəʊ] 쇼	shepherd[ʃepərd] 셰퍼드
English[ɪŋɡlɪʃ] 잉글리시	shake[ʃeɪk] 셰이크
leadership[ˈli:dərʃɪp] 리더십	shim[ʃɪm] 심

③ ‘연극이나 방송에서 출연자가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런 대사.’를 뜻하는 ‘ad lib’은 ‘애드리브’로 적는다.

④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2항에 따라 [f] 발음은 ‘ㅍ’으로 표기하므로 ‘file’은 ‘화일’이 아니라 ‘파일’이라고 적는 것이 옳다.

4) ①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지’는 의존 명사와 어미를 구분하여야 한다.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지	의존 명사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경과한 시간)
	어미 일부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안녕하 신지. (불확실)

[오답해설]

② → 그V여자는V사흘V만에V집에V돌아왔다.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되다.’를 뜻하는 ‘돌아오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만	보조사	하나 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의존 명사	그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시간의 경과) 그가 화를 낼 만 도 하다.

③ → 쌀,V보리,V콩,V조,V기장V등을V오곡이라V한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 예전에V가V본V테가V어디쯤인지V모르겠다.

‘테’는 의존 명사와 어미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장소’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테	의존 명사	책을 다 읽는 테 삼 일이 걸렸다. (장소, 경우)
	어미 일부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 테 . (종결) 날씨가 추운데 외투 를 입고 나가거 라 . (연결)

‘-쯤’은 ‘알맞은 한도, 그만큼가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인지’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에 어미 ‘-ㄴ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5) ④ [이론 문법 - 통사론 - 문장의 중의성]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중의적인 문장이 아니다.

[오답해설]

- ① 부정문의 중의성이다.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일부가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 ② 수식 범위의 중의성이다. ‘영수가 귀여운 것’인지 ‘영수의 동생이 귀여운 것’인지 알 수 없다.
- ③ 비교 대상의 중의성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그’라는 것인지 ‘그가 더 좋아하는 것이 나보다 축구’인 것인지 알 수 없다.

참고) 문장의 구조로 인한 중의성

수식 범위	예)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 [중의적 해석] ① 아름다운 그녀 ② 아름다운 목소리
비교 대상	예) 유진이는 남자 친구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중의적 해석] ① 유진이가 남자 친구와 영화를 둘 다 좋아하는 경우 ② 유진이와 남자 친구가 영화를 좋아하는 경우
공동격 구분	예) 유진이는 사과와 배 두 개를 샀다. [중의적 해석] ① 사과 1개, 배 1개 ② 사과 1개, 배 2개 ③ 사과 2개, 배 2개 예) 유진이와 영수가 여행을 갔다. [중의적 해석] ① 유진이와 영수가 함께 여행을 간 경우 ② 따로따로 여행을 간 경우
호응 성분	예)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다. [중의적 해석] ① 사람들이 여러 곳을 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다. ② 사람이 많은 곳에 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다.
수량사의 지배	예) 세 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사킨다. [중의적 해석] ① 세 명의 여자가 각각 한 남자를 사킨다. ② 세 명의 여자가 어떤 한 남자를 사킨다.
파생적 사동	예) 유진이가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중의적 해석] ① 유진이가 동생에게 밥을 직접 먹였다. (직접 사동) ② 유진이가 동생으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하였다. (간접 사동)
부정문	예) 친구들이 다 안 왔다. [중의적 해석] ①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② 일부가 오지 않았다. 예) 나는 유진이를 어제 학교에서 만나지 않았다. [중의적 해석] ① 내가 만난 사람은 유진이가 아니다. ② 내가 유진이를 만난 것은 어제 아니다. ③ 내가 유진이를 어제 만난 곳은 학교가 아니다. ④ 내가 어제 학교에서 유진이와 만난 것은 아니다. (통화를 했다.) ⑤ 어제 유진이를 만난 사람은 내가 아니다.
보조 용언	예) 유진이는 구두를 신고 있다. [중의적 해석] ① 유진이는 구두를 신은 상태이다. ② 유진이가 구두를 신는 중이다.
병렬 구분	예) 유진이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학생에게 인사하였다. [중의적 해석] ① 유진이가 웃는 경우 ② 학생이 웃는 경우
의존 명사 구분	예) 그가 우는 것이 이상하다. [중의적 해석] ① 운다는 사실이 이상한 경우 ② 이상한 모습으로 우는 경우
생략	예) 유진이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중의적 해석] ① 유진이 자신이 원하는 것 ②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6) ③ [이론 문법 -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강아지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

[오답해설]

- ① ㉠ 우리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
- ② ㉡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명사절을 안은 문장
- ④ ㉢ 지영이는 나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다.: 인용절을 안은 문장

7) ② [독해(비문학) - 내용 일치 부정 발문]

글쓴이는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고 하며 독서의 가치를 모른 채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치는 잘못된 독서 태도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글쓴이는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유를 하며 목적 없는 독서를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독서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읽은 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올바른 독서라는 것이다.

④ 글쓴이는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인 독서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책을 대할 때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8) ①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중세 국어]

㉠의 ‘中·國·국·에’는 ‘중국과’라는 뜻으로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뜻이다. 따라서 ㉠의 ‘에’는 처소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해설]

② 현대에는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어리다’를 사용하지만 15세기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어리다’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의 ‘어·린’은 ‘어리석다’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맞다.

③ 현대에는 ‘예쁘다’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로 ‘어여쁘다’를 사용하지만 15세기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로 ‘어엿쁘다’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의 ‘: 어엿·비’는 ‘불쌍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맞다.

④ ㉣의 ‘·뿌·메’는 ‘ㅁ---(어간)+-음-(명사형 어미)+에(부사격 조사)’의 구성이므로 명사형 전성 어미를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9) ② [독해(문학) - 고전 운문 내용 이해]

㉠의 ‘저제’는 ‘전쟁터’가 아니라 ‘시장’의 옛말인 ‘저자’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오답해설]

① ㉠의 ‘머리곰’은 형용사 ‘멀다’의 어간 ‘멀-’에 부사화 접미사 ‘-이’와 강세를 표현하는 접사 ‘-곰’이 결합하여 ‘멀리멀리’를 뜻한다.

③ ㉢의 ‘노코시라’는 ‘농다’의 어간 ‘농-’에 높임의 명령형 종결 어미인 ‘-고시라’가 결합한 말로 ‘농으십시오’를 뜻한다.

④ ㉣의 ‘점그를세라’는 의구형 종결 어미 ‘-르세라’가 결합하여 ‘저물까 두렵다’를 뜻한다.

[작품정리]

※ (가) 작자 미상, <정읍사(井邑詞)>

- 해제: 현전하는 백제 시가로서,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달에게 비는 형식으로 노래한 고대 가요이다. 이 노래에서 ‘달’은 남편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아내의 순수한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매개체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光明),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 노래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의 형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시조 형식의 연원으로 보기도 한다.

• 주제: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

• 구성

- 기(01~04구): 달에게 남편의 안전을 기원함
- 서(05~07구):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을까 걱정함
- 결(08~11구):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함

※ (나) 작자 미상, <가시리>

- 해제: 이 작품은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의 원망, 슬픔 등의 정서를 솔직한 언어로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이별에 처한 사람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체념, 소망의 정서를 짧은 노래 속에 집약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에 와서도 여러 가수의 노래로 재창작되어 불리기도 한 작품이다.

• 주제: 이별의 슬픔

• 구성

- 01연: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확인
- 02연: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 03연: 절제와 체념
- 04연: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

10) ④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형식 및 내용 이해]

(나)의 화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에게 ‘달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나보고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라며 원망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여음과 후렴을 가진 고려 가요이다. 따라서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민요적 시가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가)는 행상 나간 임의 무사 귀환을 달에 기원하는 노래이다. 따라서 (가)에 임에 대한 원망과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나)는 연이 나누어져 있는 분연체이나, '가시리/가시리/잇고//버리고/가시리/잇고'와 같이 3음보 율격을 가진 고려 가요이다. 따라서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는 달을 향해 행상 나간 임의 무사 귀환을 빌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청자는 '달'이다. '어느이다 노코시라(집이 있다면 어디라도 놓고 오십시오)'는 부분적으로 임을 청자로 삼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독백을 하는 것이지 대화로 볼 수는 없다.

11) ②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형식 이해]

지문에서 역설적 표현이나 자아를 비판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해설]

- ①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복숭아나무'를 소재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복숭아 나무'는 화자가 뒤늦게 이해하게 된 사람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자연물이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를 통해 그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습니다'라는 경어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고백하였다.

12) ④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㉞은 꽃잎들이 흩어진 복숭아 나무의 수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의 '흰꽃과 분홍꽃'은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복숭아나무의 피상적인 모습이다. 이는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하는 ㉡과 대조적인 의미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 나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로 여기에는 복숭아 나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드러난다.
- ③ ㉢의 '수천의 빛깔'은 겉으로 보이는 '흰꽃과 분홍꽃' 외에 화자가 깨닫지 못했던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의미한다.

[작품정리]

-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해제: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복숭아나무의 화려함에 거리감을 느꼈던 화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 주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
- 구성
 - 1연: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편견과 이해
 - 2연: 복숭아나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감

13) ①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형식 이해]

(가)는 달이 밝은 봄밤을 배경으로 화자의 고독과 애상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나)는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하여 '님'이 온다고 착각할 만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밤으로 설정된 배경이 주제와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해설]

- ②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곰비늬늬', '늬늬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위령충창'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이화(梨花)', '월백(月白)', '은한(銀漢)' 등의 백색의 이미지와 시간적 배경인 밤이 갖는 어두운 이미지를 대비하여 봄날의 깊은 밤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반면, (나)에서는 색채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 화자는 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애상을 드러냈을 뿐,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 적은 없다. 또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 야 아라마는(가지 끝에 달린 봄의 마음을 두견새가 알겠느냐마는)'을 통

해 '자규'는 화자의 마음을 모르는 대상으로 드러나 있다.

(나) 역시 감정 이입의 대상이 없으며 자연 친화적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14) ②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는 '손을 이마에 대고'라는 뜻이다.

[작품정리]

- * (가)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
- 해제: 이 작품은 봄날의 깊은 밤, 하얀 달빛 아래 배꽃이 피어 있는 곳에서 잠 못 드는 화자의 고독과 애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평시조이다. 이에 '다정가(多情歌)'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백색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여 '자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형상화함으로써 '일지 춘심'의 애상적인 정취를 아름답게 그려 내고 있다.
- 주제: 봄밤의 애상감
- 구성
 - 초장: 봄밤의 정경
 - 중장: 춘심(春心)의 심화
 - 종장: 봄밤에 느끼는 다정(多情)
- * (나) 작자 미상, <님이 오마 흥거늘 ~>
- 해제: 이 작품은 그리운 임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진솔한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화자는 중문을 나서고 때문에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임이 오는지 바라본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임을 어서 빨리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 준다.
- 주제: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 구성
 - 초장: 임이 온다는 소식에 급해진 마음
 - 중장: 임을 향한 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
 - 종장: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겸연쩍음

15) ④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한자 성어]

㉠의 '백골난망'은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을 뜻하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이다.

백골난망(白骨難忘):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白 흰 백, 骨 뼈 골, 難 어려울 난, 忘 잊을 망

배은망덕(背恩忘德):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背 등 배/배반할 배, 恩 은혜 은, 忘 잊을 망, 德 큰 덕/덕 덕

[오답해설]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四 녀 사, 面 낮 면, 楚 초나라 초, 歌 노래 가

② 각골난망(刻骨難忘):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刻 새길 각, 骨 뼈 골, 難 어려울 난, 忘 잊을 망

③ 구사일생(九死一生):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九 아홉 구, 死 죽을 사, 一 한 일, 生 날 생

[작품정리]

- * 채만식, <미스터 방>
- 해제: 이 작품은 보잘것없는 인물이 광복 직후 혼란기를 기회로 삼아 미군의 통역이 되면서 권세를 누리는 세대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 호의호식하던 인물이 주인공에게 청탁을 하는 상황이나, 사소한 실수로 권세를 잃게 되는 주인공의 처지를 회화화하여 그려 내고 있다. 광복 직후 미군정기의 혼란한 서울을 배경으로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사회상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주제: 광복 직후 혼란기의 세대 풍자
- 전체 줄거리: 서울에서 신기료장수를 하던 짚신 장수의 아들 방삼복은 광복 직후 혼란기를 틈타 미군정 아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이 된다. 그는 '미스터 방'으로 불리며 미군의 위세를 등에 업고 상류층의 청탁으로 치부하며 권력을 누리게 된다. 어느 날 고리대금으로 많은 돈을 번 친일파 백주사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며 찾아와, 광복 후 군중의 습격을 받아 도망친 사정을 토로하며 방삼복에게 복수를 부탁한다. 거들먹거리며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장담하

던 방삼복은 양치질을 한 뒤 물을 바깥으로 뱉는데 그때 마침 방삼복을 찾아온 S 소위가 이를 뒤집어쓰게 되고 방삼복은 주먹질을 당한다.

16) ①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긍정 발문]

지문에서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또는 태어나기도 전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라고 하여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구분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였고 '우리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성에 딱지를 붙인다'라고 하며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오답해설]

② 왼손잡이 아기와 오른손잡이 아기의 상황을 비교하였으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나열하지는 않았다.

③ 첫째~셋째 문단에 가정된 상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이는 글에서 제시하고자 한 문제의 발생 과정이 아니다. 이 부분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유추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관습, 사회 구조, 언론 매체를 통해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성 역할이 구분되었음을 밝혔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

④ 문제의 원인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17) ③ [독해(비문학) - 주제]

윗글에서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구분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이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우리는 고정된 방식으로 성을 구분하며,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나 사회 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윗글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라는 것이다.

[오답해설]

① 오른손잡이 아이들의 창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왼손잡이 아이들이 자기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된다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성 역할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을 구분하고 성을 강조하는 환경으로 인한 것이다. 성 역할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의 결과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18) ①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형식 이해]

서술자는 10년 간 과거 공부에 빠졌고, 12년 간 벼슬을 하다가 결국 귀양살이를 하게 된 지난 행적을 떠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해설]

② 지문에는 화자 외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윗글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타인의 심리를 추측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주변 인물과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작품정리]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 갈래: 고전 수필, 기(記)

• 해제: 이 글은 '수오재'의 의미에 대한 의문과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작자는 처음에 '수오재'라는 명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장기로 귀양을 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수오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깨달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나'와 '또 하나의 나'를 구분하여, 현상적 자아에 대비되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작자는 처음에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귀양 온 후에 자신의 지난 삶이 허망했음을 깨닫고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본질적 자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 주제: 나(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 구성:

[1] '수오재'라는 명칭에 대한 의문

[2]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현상적 자아의 변화)

[3] '나'를 지키지 못한 삶에 대한 반성(본질적 자아를 소홀히 함)

[4] 귀양지에서 비로소 찾은 '나'(본질적 자아의 정체성 확인)

[5] '수오재기'를 쓰게 된 내력

19) ③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형식 이해]

허생원은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를 통해 처녀에게 가졌던 연민의 감정을 들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동이에게는 확적(確的)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등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이라는 인물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적 배경인 '달밤'은 허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꺼내어 보기에 적절한 배경이 된다. 따라서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서사 진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를 통해 허생원이 장돌뱅이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④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㉞의 '옛처녀'는 허생원이 봉평에서 만났던 성 서방네 처녀이며 허생원은 그 처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레방앗간에서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났으나 허생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에서 허생원은 메밀꽃이 핀 달밤에 있었던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서정적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② ㉡의 '객줏집 토방'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아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물방앗간'이다.

③ 허생원이 처녀를 만난 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다. 자신도 '무섭고 기막힌 밤'이라 표현하고 있는 그날의 일은 허생원에게 아주 우연히 일어난, 꿈과 같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작품정리]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해제: 이 소설에서는 허생원, 조 선달, 동이 외에도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달밤과 메밀꽃이라는 '자연'이다. 이 소설에서의 자연은 인간화된 자연이며 그것은 바로 주인공 허생원의 삶 그 자체이다. 허생원은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서사축이 등장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 찾기이다. 허생원은 한순간 정을 맺었던 여인을 잊지 못하는데 동이가 자신의 혈육임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고 결국 과거의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정을 맺었던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곧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 처녀와의 만남 자체도 자연과 어우러진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 주제: 자연을 벗하며 떠돌아다니는 삶의 애환